

■ 편집자의 글 ■

『호모미그란스』 27호는 미국 사회의 마이너리티 공동체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마이너리티의 통합과 통제: 모빌리티 정책” 특집은 이동성, 곧 모빌리티의 제한과 허용을 통한 미국 사회로의 통합과 시민 정체성의 확립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마이너리티들의 대응과 전략을 살펴보는 2편의 연구로 구성된다. 오영인의 「미국 남북전쟁 전후 원주민의 노예문화와 흑인노예」 연구는 백인 노예주와 흑인 노예 간의 인종대립에 매몰되어 온 노예제도 관련 연구를 마이너리티 집단인 인디언 원주민 부족의 역사로 확장하고 있다. 오영인은 ‘문명화된 인디언 5부족’을 중심으로 미국 원주민과 흑인노예와의 관계를 백인, 흑인, 그리고 원주민 부족이라는 다양한 시선으로 관찰함으로써, 원주민들에게 노예제도란 무엇이었고 흑인에 대한 인종 인식은 백인의 인식과 어떤 동일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 백인은 원주민과 흑인의 연대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이러한 인종 간 분리지배가 궁극적으로 원주민의 인종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오영인은 연구를 통해 남북전쟁 이후 원주민과 해방된 노예 간의 갈등과 적응 과정에 주목하여 그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권은혜의 「제2차 세계대전 미국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드러나는 조건부 이동성(mobility)과 그 한계」 연구는 시민권의 요소로서의 이동성, 곧 모빌리티(mobility)의 배분 또는 통제 방식에 주목한다. 권은혜는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을 소수 인종의 이동성을 통제하던 미국정부의 오랜 관행의 일부로 간주하여, 일본계 미국인들이 그 정책을 수용했던 방식들을 분석한다. 미국 재정착 정책은 서부 해안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인종 갈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미국 전역에 분산시킴으로써 일본계 미국인의 동화와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 완화를 추구했다. 권은혜는 이런 동화를 위한 재정착 정책에 일본계 미국인들이 저항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형태를 분석하여 일본계 미국인들이 미국 재정착 정책의 동화 논리 또는 기대와 달리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체적 활동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

『호모미그란스』 27호는 문학 비평, 사회학, 역사학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일반 논문 4편으로 소개한다. 먼저 신영현의 「이질적인

문화의 층도로가 공존-영화 <컬러풀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는 이질적 문화 출신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이의 해소라는 공통의 주제를 다룬 코미디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서 그려지는 다양한 갈등들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신영헌에 따르면 두 영화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오해와 갈등을 소개하고 이를 해소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리면서, 특히 종교적 갈등, 인종적 갈등, 문화적 갈등 등과 같은 다양한 갈등과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두 영화는 다양한 갈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접근법을 보여준다. 신영헌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의 해소가 한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양보로 이뤄지는 반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는 대립하는 양측의 상호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갈등에 대한 대응과 해소의 방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배경진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평가의 구술시험 평가 개선 방안 연구: 분석적 채점표 활용을 중심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평가 구술시험의 평가 방식의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서 분석적 채점 척도를 활용한 채점표 도입을 통한 개선 효과를 탐색하고 있다. 배경진은 연구에서 경남에서 활동 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12명을 대상으로 모의 평가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배경진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 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는 총체적 채점 척도를 활용하는 현행 채점표가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채점 지침과 채점자 교육이 제공된다면 분석적 채점표가 현행 평가 방식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동희의 「고고자료로 본 고 백포만의 포구세력-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대를 중심으로-」는 고대의 해상 교류를 살펴보고 있다. 이동희는 해남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고 백포만의 복합사회 성장 과정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신미국(新彌國)의 흥망성쇠를 설명한다. 이동희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1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로상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지정학적 입지가 탁월한 고 백포만 일대는 중요한 기항지이자 교역의 중심지이자 여러 중소 촌락(패총) 단위를 통괄하는 핵심 취락이자 읍락(邑落)의 중심으로 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희는 논문에서 군곡리유적의 중심부에 위치한 제의공간은 의례의 중심이면서 정치적 행위의 시원적인 상징물로 추정되기에 초기 정치체인 읍락의 기원과 관련지어 볼 수 있으며,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백포만

연안은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성장하여 3세기 후엽에는 문헌에서 확인 되듯이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관문 역할을 하던 신미국으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동희는 항시국가(港市國家)는 자율성과 개방성이 있어 자유로운 교역활동을 통하여 흥하기도 하지만 주변 유력 정치체의 영향 속에서 쇠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여 신미국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 중엽까지 서남해안의 거점 항시 역할을 하다가, 4세기 후엽에 백제와의 갈등 속에서 공격을 받아 국가가 해체되기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하영준의 「카리브의 탈식민화와 아이티 혁명의 기억: 에두아르 글리상의 회곡, 『무슈 투생(1961)』을 중심으로」 논문은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였던 투생 루베르튀르를 다룬 역사극 『무슈 투생』을 1960년대 탈식민화라는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하영준은 논문을 통해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출신의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 글리상의 연극은 아이티 혁명의 재현과 흑인 급진주의 사상 내에서 일어난 탈식민주의로의 인식 전환을 선구적으로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한다. 하영준은 식민지 마르티니크가 세제르의 적극적 추진으로 프랑스의 해외 도로 통합된 후 겪었던 사회 위기와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카리브 연방을 결성하려는 정치 활동을 펼친 글리상이 아이티 혁명을 비극적 서사로 재현하면서 1960년대 카리브와 아프리카 사회주의·민족주의 정권의 타락과 몰락을 예견하였음은 물론 인식론적 차원에서 탈식민주의적 전환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